

경북 | 대구

북대구 > 경북 > 예천

농어촌공사 예천지사,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로 지역상생

자 | ⓒ 승인 2026.02.04 16:05 | ⓒ 지면게재일 2026년 02월 05일 목요일 | □ 17면 | ▢ 댓글 0

임직원 자발적 참여로 230만 원 기탁... 지역 공동체 활성화



▲ 4일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 230만 원을 예천군에 기탁한후 김학동 군수와 기념촬영 장면, 예천군 제공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나눔이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예천군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 농업과의 상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나눔이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예천군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 농업과의 상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4일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임직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 23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예천지사는 지난해 21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를 실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는 예천군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와 양수장·배수장의 적기 운영, 가뭄 대비 용수 확보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영농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장 중심의 협력은 농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천군은 공사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 덕분에 농민들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직원 모두가 예천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했다”며 “기부금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를 실천해 준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농업 기반 시설 정비와 안정적인 물 관리에 대한 공사의 헌신적인 협력이 예천 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통해 ‘살고 싶은 명품 농촌 예천’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는 제도다. 예천군은 기부금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